



◇ 스테디 불서는 깔끔한 문장과 구도의 지세로 현대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스테디 불서

경전·수상집·소설 등 종류 "가지가지"

지난 90년 이전에 발행돼 최근까지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불서들은 어떤 것들이며, 이를 통해 나타난 스테디불서의 특징은 무엇일까.

독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책은 <서있는 사람들> (형빈 총만) <산방한담> (이상 법정 지음, 샘터) <무소유> (법정, 범우사) <만다라> (김성동, 푸른숲) <우담바라> (남지심, 고려원, 전4권)의 순으로 밝혀졌다. <서있는 사람들>은 78년 초판이 선반 이후 지난해 1월 67쇄에 이르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으며, 판매부수에서도 1백만 부를 넘어서는 밀리언셀러로

등극했다. <만다라> 또한 79년 출판된 이후 50만부가 팔려나가는 스테디셀러로 기록된다. 가장 오래 전에 출판돼 최근

'서있는 사람들' 백만부 팔려 꾸준한 인기 바른 깨달음 안내 등 정신적 지표 역할 "톡톡"

까지 나오고 있는 책은 <불교사건> (우하, 동국역경원, 61년 초판)으로, 28쇄 5만6천권이 판매되며 30년 이상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다. 스테디불서로 집계된 23종 가운데 경전과 수상집이 각각 5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이 선·명상 소설 불교인문·교리 불교사상 사진 건강의 순이었다. 80년 이전에는 <불자지침> 등 독수를 위한 경전류와 이에 따른 필자교섭적 영업력 등이 뛰어난 곳으로 밝혀졌으며, 수상집과 소설을 제외한 경전 및 교리·인문 등의 불서

◇ 스테디불서 23종

도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년도	인쇄	판어	분류
법구경	김달진 역	현암사	69년	10쇄	3인	경전
아함경이요기	김달진 역	현암사	79년	18쇄	3인	"
보현정인경	김달진 역	현암사	80년	15쇄	2인	"
유조판경	혜봉	법문	79년	15쇄	2인	"
불교상전	연진희	동국역경원	72년	44쇄	13인	"
생의 의문에서 그해결까지	공덕	불광	81년	19쇄	3인	인문교리
불교를 알기 쉽게	법정	법원	81년	34쇄	3인	"
선종명가집	영가연 역	불광	71년	84쇄	12인	선·명상
선교학	문서주 역	불광	81년	94쇄	12인	"
선으로 가는 길	박지현	일지사	79년	23쇄	2인	"
일화사상	이기영	종학원	69년	64쇄	1인	불교사상
실천적 불교사상	법정	정토	88년	74쇄	5인	"
서있는 사람들	법정	샘터	78년	67쇄	1백만	수상집
형빈 총만	"	"	80년	47쇄	7인	"
선명정담	"	"	83년	134쇄	64인	"
무소유	"	범우사	78년	58쇄	60인	"
사랑하며 용서하며	한병	법원	83년	38쇄	9인	"
만다라	김성동	푸른숲	79년	50인	50인	소설
우담바라	남지심	고려원	81년	36쇄	432인	"
스티븐즈	혜봉	범우사	83년	104쇄	725인	"
불교사전	공덕	동국역경원	61년	284쇄	526인	사전
불교학 대사전	연진희	종학원	88년	74쇄	1인	"
성흔대주기	성흔	우리출판사	85년	20쇄	4인	경전

스테디셀러는 단지 많이 팔린다는 베스트셀러와는 달리 일정한 품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출판사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범우사 편집실장 부길만씨는 "베스트셀러가 짧은 일정기간 동안의 독서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면, 스테디셀러는 한 시기의 정신적 지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들 불서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평가하고 "심신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안을 주고 값진 문장과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 자세로 삶의 지표를 전해주기 때문"이라고 스테디셀러가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정성운 기자)

출판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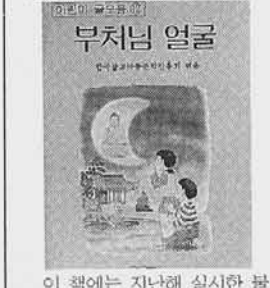
월간 '굴렁쇠 어린이' 동쪽나라로 제호바꿔

불교계의 유일한 어린이잡지 월간<굴렁쇠어린이>가 3월호부터 제호를 <동쪽나라>(263-1387)로 바꿔 새롭게 선보인다. 발행인 김형근씨는 "동쪽나라"는 "해 뜨는 나라"라는 뜻과 함께, 서방정도에 비추어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부처님의 땅임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3월호부터 24면을 증면해 정채봉씨의 생각하는 연재동화, 이동렬씨의 신나는 글짓기교실, 윤승운씨의 만화삼국유사를 새로이 연재, 보다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꾸밀 것이라고 밝혔다.

90년 1월 창간된 <굴렁쇠어린이>는 그동안 통권 59호를 발행하며 계려의 열과 조상의 슬기를 담은 잡지, 전통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잡지, 부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달하는 잡지로 불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한편 <굴렁쇠어린이>도 <동쪽나라>로 명칭이 바뀐다.

어린이 글모음 퍼내 불교아동문학진흥회

한국불교아동문학진흥회(이사장 박용일)는 최근 열두번째 어린이 글모음집 <부처님 얼굴>을 도서출판 고글에서 펴냈다.



이 책에는 지난해 실시한 불교어린이 글짓기대회에 참가한 교사 및 종립학교 어린이들의 불교소재 작품 중에서 가려 뽑은 동요와 동시 생활문 86편이 실려 있다.

1억원 고료 만화공모 하늘미디어, 3월까지

도서출판 하늘미디어(대표 우정애)는 만화사상 최고 규모액인 1억원의 고료를 내걸고 창작만화를 공개모집한다. 시인 기성 재한없이 응모가능하며, 1년 192~240면 기준으로 5권분량 이상(응모시는 2권분량의 작품과 원고지 20장 내외의 줄거리 제출)의 작품을 3월 31일까지 내면 된다. 당선작 1편에는 5천만원, 우수작과 가작 각 1편에는 3천만원과 2천만원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문의 (02)273-9282.

※기사참치 「명사추천 불서100선」 이번주 읽는다.

새로 나온 책

▲선과 동방문화(오형근 의 지음)=한중불교학술교류회의 첫번째 논문집, 한국에 달라 선이 도입되기 이전의 선학을 밝힌 '선라전기의 선사상(오형근)'을 비롯 '한국과 중국 선학의 비교연구(문명대)' '선과 서법예술(장대강)' 등 두 나라의 정신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불교의 선사상을 주제로 한 논문 18편을 실었다. <한중불교학술교류회, 비매출>

▲선과 동방문화(오형근 의 지음)=한중불교학술교류회의 첫번째 논문집, 한국에 달라 선이 도입되기 이전의 선학을 밝힌 '선라전기의 선사상(오형근)'을 비롯 '한국과 중국 선학의 비교연구(문명대)' '선과 서법예술(장대강)' 등 두 나라의 정신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불교의 선사상을 주제로 한 논문 18편을 실었다. <한중불교학술교류회, 비매출>

▲법공양문(일터 역음)=부처님과 중국 미 우리나라 고승들의 법문 가운데 감명깊은 글들을 가려 뽑았다. 원효대사의 법공양문, 지공화상의 권세문, 경허선사의 입산가, 권철스님의 남자십계(納子十偈), 달마대사의 사량관, 심심명, 증도가 등 45편의 글을 발심장 수행장 구경장(兜率章)으로 나누어 원문(한자)과 번역문을 함께 실었다. <효림, 5천원>

▲초발심 수행문(석승임 역음)=수행의 기초로 널리 읽히는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원효스님의 자경문(自警文)을 원문과 번역을 실어 해설하고 불교의 기초지식을 문답식으로 풀이했다. <웃불, 7천원>

▲부처님 땅 3.4(이정범 글·이희탁 그림)=부처님의 지혜를 전해주는 6~7세 어린이 이용 불서. 3권은 연못 코끼리 사자, 4권에서는 스님 할 장 축비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각 면마다 동화와 그림을 곁들였다. <불자사, 각권 4천원>

▲오목이 열전(윤승운 지음)=올바른 신앙생활과 굳건한 신념으로 후세에 귀감이 되는 종교인들의 삶을 그린 종교만화. 원효 해초 일연 용과 나옹 조선 대담스님 등 불교인 7명을 비롯 22명의 종교인을 소개하고 있다. 문화체육부 지원으로 제작됐다. <송우출판사, 4천5백원>

▲열반의 빛(석용산 지음)=원효스님의 일곱번째 시집으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위해 정진하는 수행자의 구도의지를 단숨에 부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시인이 동진에게 의해 영문으로 번역돼 영어권에서 동시에 출판됐다. <문학수첩, 3천5백원>

▲그날 비라만 불뿐이다(고연카 지음)=문답과 예화를 중심으로 위빠사나 명상법을 훈련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이해를 밝힌 수행서. 위빠사나 수행자인 고연카의 가르침을 편역자 서공삼님이 현대식 리학적인 면에서 해설을 덧붙였다. <불광출판부, 4천5백원>

▲초발심 수행문(석승임 역음)=수행의 기초로 널리 읽히는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원효스님의 자경문(自警文)을 원문과 번역을 실어 해설하고 불교의 기초지식을 문답식으로 풀이했다. <웃불, 7천원>

▲부처님 땅 3.4(이정범 글·이희탁 그림)=부처님의 지혜를 전해주는 6~7세 어린이 이용 불서. 3권은 연못 코끼리 사자, 4권에서는 스님 할 장 축비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각 면마다 동화와 그림을 곁들였다. <불자사, 각권 4천원>

▲오목이 열전(윤승운 지음)=올바른 신앙생활과 굳건한 신념으로 후세에 귀감이 되는 종교인들의 삶을 그린 종교만화. 원효 해초 일연 용과 나옹 조선 대담스님 등 불교인 7명을 비롯 22명의 종교인을 소개하고 있다. 문화체육부 지원으로 제작됐다. <송우출판사, 4천5백원>

▲열반의 빛(석용산 지음)=원효스님의 일곱번째 시집으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위해 정진하는 수행자의 구도의지를 단숨에 부양한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자재, 도가 뉘지 아니	효림	대원정사
2	영원한 자유의 길	성철	장경각
3	가려뽑은 아람경	교육위원회	산우도량
4	서울	최원식 외	사월문화연구원
5	천수경	무비	발일
6	불교의 체계적 이해	고익진	새터
7	참된 사람들의 이야기	윤승운	불지사
8	사찰, 그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교보문고
9	알기 쉬운 불교	권성부	불교방송
10	이와같이 나는 들었다	암도	우리

구입문의: (02)737-0695

화제의 책

서울의 사찰 52곳 자세히 소개

서울지역에 소재하며, 2백년 이상의 역사와 함께 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은 모두 52곳에 이른다. 이들 전통사찰과 3곳의 절터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강원도 경기도에 이어 전통사찰총서 시리즈 네번째권인 <서울>에서는 속설로 전해지는 창건주와 창건연대, 단편적으로 밝혀진 사찰의 연혁을 재정리하는 등 사지(寺誌)로서의 체계성도 갖췄다. 사찰의 문화재적 가치 뿐만 아니라 수행·신앙의 타점으로서의 의미를 부각시킨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사찰문화연구원,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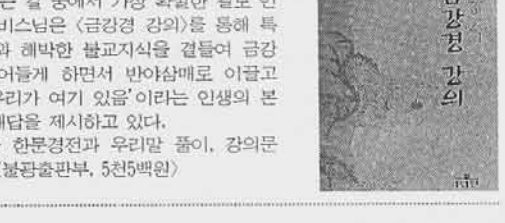
위기극복 위한 불교 가르침

오늘의 현대문명이 처해있는 위기와 이의 극복을 위한 대안적 세계관으로 불교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커지고 있다. <불교를 알면 21세기가 보인다>는 한국불교사회연구소가 '21세기 불교아카데미' 강좌내용을 묶은 불교 및 현대문명 비평서로, 불교에 잠재된 사상의 현실적 에너지가 인류공동체의 과제를 해결하는 필연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불교의 보편성과 미래의 비전(이남곡)' '과학과 불교의 새로운 만남(박광서)' '새로운 문명관, 인간상을 찾아(법륜)' '지역사찰의 위상과 역할(현승)' 등 8편의 강의를 실었다. <정토출판사, 4천8백원>

인생문제 본질에 대한 해답서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깨달음이 모두 이 경에서 나왔다"고 할 정도로 금강경은 불교라는 거대한 산맥을 향해오르는 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길로 인식되고 있다. 무비스님은 <금강경 강의>를 통해 특유의 선의 견지와 해박한 불교지식을 곁들여 금강경의 진수에 젖어들게 하면서 반야삼매로 이끌고 있다. 아울러 '우리가 여기 있을'이라는 인생의 본질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금강경 32문을 한문경전과 우리말 풀이, 강의문으로 구성했다. <불광출판부, 3천5백원>



인물중국선종사

성본 외 지음

중국선종은 1천7백 공안을 남기는 등 우리나라 선종과도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인물중국선종사>는 '진동법맥과 사자전승' '우무종' '정종종' '북종선' '남종선' 초기 선종사상사' 등 6개의 장으로 구성, 보리달마로부터 남양회암 대주에해원사사비까지 모두 32명의 중국선종의 생애와 선지를 정리하고 있다. 또 이 책에서는 중국선종사에서거론조차 않았던 정종종 계보의 복원과 함께 정종무상선사 문헌에서 신라 구산선문이 형성되었음을 밝혀 선종사 구성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불교영상, 1만5천원>

소금을 바꿔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佛자가 먹는 소금,

인산죽염은 생명원소들이 살아있는 굵은 소금을 왕대나무통 속에 넣고 입구를 지리산 황토로 봉한 다음 1천도 이상의 센불에 구워 낸 약소금입니다. 죽염의 창제자 仁山 김일훈(1909~1992) 선생의 가르침 그대로 만든 세계 최고의 소금-인산죽염. 소금을 인산죽염으로 바꾸십시오.

150년을 믿는 '신토불이 건강의 맥'

仁山家

고객상담 736-3171 • 죽염요법 상담/질병치료 정신수양을 위한 씩씩 상담

절찾아가는 길

점점 녹슬어가는 "우리절 이정표" 이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큰 맘 먹고 장만한 '우리절 이정표' 막상 비 오고 시간이 흐르면 녹슬고 철이 벗겨져 보기 흉해집니다. 간판을 자주 할 수도 없고, 칠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보면, 처음부터 잘 만드는 곳에 맡기셔야만 합니다. 저희 '가람기획 이정표'는 녹이 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반영구적인 스텐레스 재질로 디자인까지 산뜻합니다. 또한 저희 '가람'에서는 불교의 전문화·고급화·대중화를 위하여 불교미술문화를 소재로 한 디자인의 현수막과 전국사찰지도·사찰연혁판·게시판·리본·상패·포스터·팸플릿·세계불교기·법륜기·만물기 등과 각종행사 기획을 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람기획'은 오직 「불자」됨을 자부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720-5121, 2874 FAX 732-3769

기림쇼핑 대표 이주영